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420회)

단양천 기후대응댐 후보지 선정 전면 백지화 건의안

제 안 자	건설환경소방위원장
제안연월일	년 월 일

단양천 기후대응댐 후보지 선정 전면 백지화 건의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 .
제안자: 건설환경소방위원장

☐ 주 문

단양천 기후대응댐 후보지 선정 전면 백지화를 건의한다.

☐ 제안이유

-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고, 여기에 단양천 댐이 포함되었음.
- 단양천 댐 건설을 계획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후보지를 먼저 발표한 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한 것으로 절차의 정당성을 결여한 것임.
- 단양은 과거 충주댐 건설로 인한 수몰의 경험을 가진 지역으로, 단양천 댐이 건설되면 수몰 지역 확대에 따른 인구소멸, 지방소멸 가속화를 막을 수 없음.
- 단양천 댐 건설로 수몰되는 지역에 지역관광산업이 밀집된 선암계곡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임.
-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단양천 기후대응댐 후보지 선정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건의함.

☐ 보내는 곳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국회 환경노동 위원장

붙임 건의안 1부.

단양천 기후대응댐 후보지 선정 전면 백지화 건의문

지난 7월 30일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습니다. 극한기후로 인한 홍수·가뭄 피해를 막고, 용수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물그릇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양천 댐이 포함되어 충북도민을 혼란과 분노에 빠뜨렸습니다.

누구도 요구한 바 없는 단양천 댐 건설을 계획하면서 환경부는 단 한 번도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단양천 댐 건설로 피해를 입는 것은 지역주민들임에도 환경부는 후보지 발표를 먼저하고,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자 그제서야 지역주민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지역주민은 무시한 채, 댐 건설이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는 것으로 절차의 정당성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게다가 단양은 과거 충주댐 건설로 인해 군청 소재지를 포함한 167만 5천 평이 수몰된 경험을 가진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2,684세대가 이주하는 등 급격한 인구 유출을 겪었고, 경제기반이 무너져 내려 단양은 지금 인구감소지역 및 소멸고위험지역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단양천 댐이 건설되면 댐 예정지로부터 상류 3.8km까지 수몰 지역이 확대되는 것을 피할 길이 없고, 이에 따라 인구소멸, 나아가 지방소멸의 가속화는 막을 길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단양천 댐 건설로 수몰되는 지역은 선암계곡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는 단양팔경 중 3경인 상선암, 중선암, 하선암이 있습니다.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하여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이곳은 지역관광산업이 밀집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암계곡이 수몰되어 단양팔경을 단양'오'경으로 만들고, 그로 인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 뻔한 단양천 댐 건설에 찬성할 지역주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실향의 슬픔과 이주의 고통이 채 아물기도 전에 수몰로 터전을 잃은 지역주민들에게 그 슬픔과 고통을 다시 한번 겪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단양천 댐입니다. 나아가 지역주민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고, 자연유산을 훼손하는 것이 바로 단양천 댐인 것입니다.

환경부가 이 같은 점을 인식하였다면 지역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이 기후대응댐 후보지 발표를 선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전원은 164만 충북도민의 뜻을 모아 단양천 기후대응댐 후보지 선정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 . .

충청북도의회